

# 대학 온라인 중국어회화 교과목 운영에 대한 핵심역량적 분석\*

임 연 정\*\*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온라인 중국어회화 교과목의<br>핵심 역량적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1. 교과목 개요                        |
| 1. 4차 산업혁명과 핵심역량 | 2. 교육안 내 핵심역량 분석                 |
| 2. 역량교육의 특징      | 3. 설문조사 결과                       |
| 3. 선행연구          | IV. 결론                           |

## I. 서론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인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로 급속도로 진입하였다. 특히 첨단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 또한 기존에 예상한 바를 이미 초월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

\* 본 논문은 2022년 11월 5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주제: 사람과 사물의 경계를 넘어서: 중어중문학과 탈휴머니즘—한·중 수교 30주년 중어중문학의 성찰과 도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동시에 개인의 행복 또한 유지할 수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이란 개념이 빠르게 부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교육에서 핵심역량은 주요 주제로 부상했으며,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사업’으로 인해 역량이란 개념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교육체제 및 과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쳐 중국어교육을 포함한 외국어교육 학계에서 역량 중심의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교육계에서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안을 설계 및 운영할 때 핵심역량적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이로 인해 핵심역량적 시각을 반영한 교육 설계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인 핵심역량 기반 교육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중국어회화 교과목 운영 사례를 핵심역량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후, 그와 관련된 핵심역량 향상도 및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 중국어교육에서 핵심역량 관련 교육의 전개 가능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4차 산업혁명과 핵심역량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최초로 제시되면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超)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 중시되던 암기력 및 이해력보다는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창의력, 융합력, 문화적 다양성, 협업 등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교육이나 훈련 체계 및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박경중·강마리아, 2021:141).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핵심역량이란 개념이 급속도로 부상하였다. 직업 훈련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 역량은 본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에서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인지 및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 심리적 속성을 가동하여 특정한 맥락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OECD, 2005:2)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많은 역량 중에서 사회와 개인을 위한 가치 있는 결과물 창출에 기여하고 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을 핵심역량이라고 정의하면서(OECD, 2005:4),

<표 1>과 같은 3개 범주의 9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DeSeCo 프로젝트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교육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 대학교육의 주된 역할이었던 지식 및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핵심역량 향상으로 중심이 전환된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요구 향상, 2015년 국가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도입, 역량평가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내 대학들은 목표 핵심역량 설정, 과목별 역량 설계 등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김혜경, 2021:307).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 급속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역량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조보경·전영주, 2022:238).

<표 1> OECD의 핵심역량(홍원표 외 2인, 2010:25)

역량범주	하위역량
1. 상호작용적인 도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양방향 활용</li> <li>• 지식과 정보의 양방향 활용</li> <li>• 정보기술의 양방향 활용</li> </ul>
2.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과 관계 맺기</li> <li>• 그룹에서 일하고 협동하기</li> <li>• 갈등 관리 및 해결하기</li> </ul>
3. 자율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전망을 갖고 행동</li> <li>• 인생 계획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li> <li>• 권리와 관심, 한계, 필요를 주장하고 보호</li> </ul>

## 2. 역량교육의 특징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 기반 교육은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과 어떤 차이

가 있을까? 이민경 외 9인(2021:34-36)은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역량교육의 목적은 실제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향후 학생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습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역량교육은 실제 삶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그 안에 탑재된 정보 및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이다. 즉 역량교육은 이러한 첨단 기기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관계가 깊다. 셋째, 역량교육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수동적인 방식만으로도 효과적인 지식 전달이 가능하던 기존 교육과 달리, 역량교육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역량교육에서 교사는 티칭(teaching)을 넘어서 학습을 촉진(facilitating)하고 코칭(coaching)하며 자문(advising)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역량교육에서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조언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종합해보면 역량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내용 및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주체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수자의 주된 역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역량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3. 선행연구

한편 대학교육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우선 양채원·문지영(2022:15-16)은 2010년

이후에 대학에서 진행된 역량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각 대학별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K-CESA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역량 분석 및 사례연구, 핵심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및 성과 분석 등으로 연구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우선 박은희(2019:64-65)는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의 다원적 의미로 인해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핵심역량의 정의, 특성, 구성요소, 교육방법, 측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백승수(2020:16)는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이 역량 선정 및 교과목별 역량 매핑,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개발 등 가시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핵심역량을 평가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역량 향상 및 성취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역량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과목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백승수, 2020:17).

한편 중국어교육계에서도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수광(2020a)은 대학교 교양교육 과정의 보편적인 핵심역량을 설정한 후 핵심역량 기반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위수광(2020b)은 핵심역량의 개념 고찰을 토대로 국내 7개 대학 중국어 관련 학과의 중국어 전공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분석한 후, 핵심역량과 중국어 전공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임연정(2022)은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중국어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통과 자기주도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핵심역량 향상은 핵심역량 선정 및 중요도 등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어교육계에서도 대학 내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연구 주제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연구가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핵심역량적 시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육안을 분석하거나 관련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이러한 관련 연구의 부족은 핵심역량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 부족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어교육 내 핵심역량 관련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대학 온라인 중국어회화 수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핵심역량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중국어회화 교육안에 내재된 핵심역량적 요소를 분석한 후, 핵심역량 향상도 및 학습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어교육 내 핵심역량 관련 교육의 진행 가능성,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Ⅲ. 온라인 중국어회화 교과목의 핵심역량적 분석

#### 1. 교과목 개요

본 교과목은 일주일에 1회, 2시간으로 설계된 D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의 중국어회화 교과목이다. 본래 본 교과목의 주요 목표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국어 어휘 및 문장 습득, 그리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중국어 말하기 능력 강화이다. 본래 대면 수업으로 설계되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과목의 핵심역량을 설정하며 D대학교의 핵심역량 분류 및 정의, 그리고 K-CESA 분류 등을 참고하였고, 의사소통역량을 주역량, 그리고 세계시민역량과 자기주도역량을 2개의 부역량으로 선정하였다.<sup>1)</sup> 그

1) 이렇게 3개의 핵심역량을 선정한 이유는 모든 과목별로 주역량 1개, 부역량 2개를 설정하는 D대학교의 방침 때문이다.

리고 비록 본 교과목의 목표 핵심역량은 아니지만 분석을 진행하며 협력·헌신 역량의 상황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 및 소통 등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각 목표 역량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소통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 및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것으로, 말하기, 쓰기 등의 표현 영역과 듣기, 읽기 등의 수용 영역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15:3).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 또한 수립할 수 있다(박경중·강마리아, 2021:281). 또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직접 혹은 가상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Bernie Trilling, Charles Fadel, 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98).

그리고 자기주도역량은 본인의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OECD, 2019: 1-3).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생은 타인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나와 타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및 신념, 그리고 본인의 학습에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자기 효능감 등과 연결된다(김중윤 외 5인, 2021:76). 이와 관련해 Schoon(2018:4)은 미래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성과 자기 통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시민역량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글로벌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 및 자세, 그리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박경중·강마리아, 2021:258). 핵심역량으로

서의 글로벌 역량은 무엇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외국에 대한 이해능력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리더십 혹은 글로벌 리더로 연결된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의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특성으로는 ‘호기심, 인성, 다양성 수용, 통찰력’ 등을 들 수 있다(박경중·강마리아, 2021:259). 또한 이러한 세계시민 역량은 타인과의 교류 및 협동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헌신역량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협업역량과 관계가 깊다. 이와 관련해 김유경·이지은(2021:491-492)은 협업역량이 협력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며, 협업역량의 발전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고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협업역량 개발이 학습의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역량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상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융합하며 조정하는 협업 과정을 통해서 교육된다. 즉 다른 동료학생과 함께 과제 혹은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네 가지 역량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이 네 가지 역량이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안을 분석하며 무엇보다 학생들 간의 교류, 그리고 학생과 교수자 간의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2. 교육안 내 핵심역량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본 과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향후 더욱 확대될 대학교 온라인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실시간 및 비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2021년 1학기 및 2학기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기별 강의 내용 및 활동 주제, 강의 방식 등은 <표 2>와 같다. 우선 2021년 1학기에는 사전 녹화 동영상 강의와 Zoom 실시간 화상강의를 혼합한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 혼합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주 동안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수강한 후, 실시간 Zoom 화상강의에서 동영상 강의에서의 내용을 연습하고, 한발 더 나아가 관련 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인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실습 및 그룹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어서 2021년 2학기에는 대표적인 실시간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한 화상강의를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이론 강의를 선행된 후, 학생들이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1학기 및 마찬가지로 소회의실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표 2> 주요 내용 및 학기별 운영 상황

주차	주요 내용	1학기	2학기
1주차	강의 소개	Zoom 실시간 강의	Zoom 실시간 이론 강의
2주차	일상 묻고 대답하기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	
3주차			
4주차	장소 묻고 대답하기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5주차	일상 및 장소 실습 및 그룹 활동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	Zoom 실시간 이론 강의
6주차			
7주차	물건 사기(1)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8주차	물건 사기(2)	중간고사	중간고사
9주차	물건 사기 실습 및 그룹 활동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	Zoom 실시간 이론 강의
10주차			

주차	주요 내용	1학기	2학기
11주차	평가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12주차 13주차	약속 정하기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	Zoom 실시간 이론 강의
14주차	주말 계획 말하기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15주차	약속 및 계획 실습 및 그룹 활동	기말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두 학기 모두 Zoom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3~4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소회의실에서 그룹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난 2주간 사전 녹화 동영상 강의 혹은 Zoom 실시간 이론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어 의사소통 상황을 교재 본문과 같은 대화문 형식으로 직접 설계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7주차에는 5주차와 6주차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음료 혹은 과일 구매와 같은 ‘물건 사기’와 관련된 중국어회화 본문을 스스로 설계해 보는 것이다.

그룹 구성원은 서로 상의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결정하였고, 관련 어휘 및 문장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스스로 검색한 후 대화문을 설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한자, 한어 병음, 한국어 해석 등이 모두 기재된 결과물을 작성하였고, 작성이 끝나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한 후 곧바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 중에 학생들은 교재 본문에 출현하지 않았지만,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어휘, 그리고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검색하여 중국어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룹 구성원 중에 중국어 학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중국 연수 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동료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자는 줌의 소회의실 참가 기능을 활용하여 각 그룹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였고,

각 소회의실로 전체 메시지를 전송하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어서 직접 설계한 대화문을 바탕으로 중국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하고, 연습이 끝나면 다시 본회의실에 모이도록 했다. 동료학생들과 교수자가 모두 모이면 각 그룹별로 중국어 말하기 연습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제출한 대화문을 화면으로 공유하여 다른 그룹의 학생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학습 경험과도 비교할 수 있었다. 대화문의 분량을 미리 확정하여 공지하였기 때문에 각 조별 발표 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발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각 조의 구성원 모두 한 학기 동안 1회 이상 발표하도록 요구하였다. 말하기 연습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발음 연습 등을 진행할 때에도 동료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시간 수업 시간에 그룹 활동의 전 과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본 과목이나 기타 중국어 수업, 혹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습득한 중국어 어휘 및 문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수업이 종료된 후 교수자가 LMS에 제출된 그룹별 대화문 내 오류를 수정한 후 주요 표현을 정리해 공지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학생들의 그룹별 활동을 완벽하게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동료학생의 활동 수행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루브릭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각 학기 말에 그룹별로 동료평가를 진행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본 교과목의 세부 내용은 중국어회화 교과목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

2) 활동이 수행되는 매시간 동료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이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활발한 활동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동료평가는 각 학생의 참여 자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의 활동 참여도와 교류의 적극성 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결과는 태도 점수로 최종 평가에 활용하였다.

본 역량의 특징 및 역량교육과 지식교육의 차이(이민경 외 9인, 2021:34-36)를 상기할 때<sup>3)</sup>, <표 3>과 같이 핵심역량 교육에 부합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교육안 내 핵심역량 요소

교육안 활동	핵심역량 교육 특징
실제 의사소통에서 진행될 수 있는 중국어 회화 설계	실제 삶의 문제 상황 해결
핸드폰, 노트북 등의 각종 디지털 매체 활용	실제 삶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 진행
실시간-비실시간 혼합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실현
교사는 촉진 및 코칭, 자문 역할	교사의 조력자 역할
협력학습, 협동학습, 동료학습	타인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 기반

첫째, 실제 상황에 맞는 회화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중국어 회화 본문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핸드폰, 노트북 등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매체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삶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셋째, 본 교육안의 그룹활동을 통한 중국어회화 본문 설계 및 연습 뿐 아니라,<sup>5)</sup> 2021년도 1학기에 시행된 실시간-비실시간 혼

3) 구체적인 내용은 2장 2절 참고.

4) 또한 본 교육안은 21세기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21세기 학습자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여러 매체를 번갈아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전문가이다. 또한 수동적으로 교수자의 수업을 듣기보다는 직접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습하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 습득, 정보와 미디어 활용 등에 매우 능숙하다(류태호, 2017:51). 1학과 2학기 모두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5) 박소영 외 4인(2013:11-13)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및 유지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자원을 탐색하며 학습전략을 선택 및 수행하고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

합 교육을 통해서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교육안 중 중국어 회화본문 설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조별 활동을 촉진 및 코칭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습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는 교사의 역할에도 부합한다.

또한 본 교육안은 학생들이 온라인 실시간 그룹 활동을 통해 중국어 말하기 본문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작성하고, 함께 연습하고 발표한다는 점에서 협력학습(Collaboration Learning) 및 협동학습(Cooperation Learning), 동료학습(Peer Learning) 등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이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이현정, 2020:157-158). 협동학습 또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교수방법이며, 경쟁학습 혹은 개별학습과 달리,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동에 기반하여 학습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박일수, 2019:1010). 또 동료학습은 배움을 촉발시키는 최고의 학습법 중 하나로 함께 협업하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과정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이민경 외 9인, 2021:21).

종합해볼 때 협력, 협동, 동료학습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핵심역량 교육의 특징에 부합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는 앞서 교과목 개요에서 살펴본 목표 핵심역량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설정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표 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습유형'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학습 목표 설정, 관련 자원 탐색, 학습전략의 선택 및 수행, 학습 결과물 모니터링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육안의 그룹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단계별 목표 핵심역량

단계	목표 핵심역량
교수자 강의	1학기: 의사소통, 세계시민(중국문화 소개), 자기주도(동영상 강의) 2학기: 의사소통, 세계시민(중국문화 소개), 협력·헌신(짝 연습)
중국어 회화 본문 설계	자기주도, 협력·헌신, 의사소통, 세계시민(중국 문화 검색)
작성 및 탑재	자기주도, 협력·헌신
연습 및 발표	협력·헌신, 의사소통
피드백	의사소통, 자기주도

우선 교수자의 강의 단계에서는 1학기과 2학기 모두 의사소통역량, 그리고 중국문화 소개를 통한 세계시민역량을 목표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학기과 2학기의 온라인 강의 유형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자기주도역량(동영상 강의)과 협력·헌신역량(짝 연습)을 설정해 보았다. 한편 중국어 회화 본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협력·헌신, 의사소통, 세계시민(중국 문화 검색)역량’을, 회화 본문을 중국어로 작성하고 LMS에 탑재하는 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협력·헌신역량’을, 회화문을 연습하고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협력·헌신, 의사소통역량’을,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피드백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자기주도역량’을 각각 설정해 보았다.

이어서 본고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본 교육안이 목표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세계시민, 자기주도, 협력·헌신 등의 역량 향상에 과연 효과적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활동이 핵심역량교육의 성격 및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어 교과목에서 핵심역량 함양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설문조사 결과

우선 본고의 연구대상은 <표 5>와 같다.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 1학기에는 총 33명(66%), 그리고 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학기에는 총 17명(34%)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sup>6)</sup>

<표 5> 학기별 연구대상

온라인 플랫폼	실시간-비실시간	실시간	합계
빈도(명)	33	17	50
유효 퍼센트(%)	66	34	100

그리고 교차분석 실시 결과 성별, 전공, 중국어학습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을 확인하여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각 학기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구분		1학기	2학기	전체	(p)	
성별	남학생	빈도(명)	4	5	9	2,273 (.132)
		학기 중 %	12.10	29.40	18.00	
	여학생	빈도(명)	29	12	41	
		학기 중 %	87.90	70.60	82.00	
전공별	인문·사회계	빈도(명)	12	8	20	5,209 (.157)
		학기 중 %	36.40	47.10	40.00	
	이공계	빈도(명)	5	6	11	
		학기 중 %	15.20	35.30	22.00	

6) 우선 모든 설문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한 결과를 제외하였고, 연구대상의 동질성 확보와 중국어 능력 차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어 학습기간이 2년 이상인 학생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1학기	2학기	전체	(p)
전공별	예체능계	빈도(명)	10	2	12	5.209 (.157)
		학기 중 %	30.30	11.80	24.00	
	보건·간호계	빈도(명)	6	1	7	
		학기 중 %	18.20	5.90	14.00	
중국어 학습 기간별	6개월 미만	빈도(명)	12	5	17	1.703 (.636)
		학기 중 %	36.40	29.40	34.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빈도(명)	11	4	15	
		학기 중 %	33.30	23.50	30.00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빈도(명)	5	3	8	
		학기 중 %	15.20	17.60	16.00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빈도(명)	5	5	10	
		학기 중 %	15.20	29.40	20.00	

\*p<.05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9명(18.00%), 여학생이 41명(82.00%)이었다. 한편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20명(40.00%), 이공계열은 11명(22.00%), 예체능계열은 12명(24.00%), 보건·간호계열은 7명(14.00%)이었다.<sup>7)</sup> 마지막으로 중국어 학습기간은 6개월 미만인 학생이 17명(34.00%),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학생은 15명(30.00%)이었다. 또 1년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인 학생은 8명(16.00%),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인 학생은 10명(20.00%)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K-CESA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핵심역량 측정 도구이다. 하지만 수행형 검사가 포함되고 문항 수 또한 많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7) 학생들의 전공계열은 D대학교의 교육과정표를 참고로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보건·간호계열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고진영·정기수(2017), 김연희 외 3인(2010), 김지원(2019), 박성미(2011), 신혜중(2019), 이석재 외 3인(2003) 등을 참고하였고, 무엇보다 D대학교의 의사소통, 세계시민, 자기주도, 협력·헌신 등의 핵심역량 설정에 부합하고, 동시에 중국어회화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핵심역량별로 12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총 48개의 설문 문항을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설계하였다.<sup>8)</sup> 또한 객관적인 핵심역량 향상 측정 외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핵심역량 향상도를 파악하기 위해 6개의 자기 평가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였다. 비록 본 교과목의 목표 핵심역량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학과와 2학과가 종강되는 15주차 전후로 시행하였고, 구글 설문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본 수업과 관련된 핵심역량 향상 및 학습자 인식 조사임을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관련 핵심역량에 대해 설명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전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후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후 실시한 신뢰도 검증 결과 핵심역량 향상 측정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857, 학습자 인식을 묻는 문항의 Cronbach'  $\alpha$  .836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도를 학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을 진행하며 2021년 2학기의 연구대상이 3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8)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측정 연구도구에서 본 교과목의 목표 핵심역량 측정에 적합한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고, 전체 맥락과 중국어교육의 특징에 맞게 어휘 정도만 수정하였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을 고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을 본문에 제시하는 대신 참고문헌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등분산검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고, 이에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Z=-0.701$ , 유의확률 .483(유의확률  $p<.05$ )로 1학기과 2학기과 서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학생들의 목표 핵심역량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어서 학기별로 각 핵심역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학기별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도

핵심역량	실시간-비실시간(1학기)			실시간(2학기)		
	평균	N	SD	평균	N	SD
의사소통	4.23	33	0.5783	4.52	17	0.5151
자기주도	4.38	33	0.6187	4.45	17	0.6167
세계시민	4.31	33	0.5705	4.43	17	0.5327
협력·헌신	4.36	33	0.5792	4.51	17	0.6805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 기반의 수업이 진행된 1학기과 실시간 플랫폼 기반의 수업이 진행된 2학기 모두 모든 핵심역량의 향상도가 4.00 이상으로 나타나 본 교육안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주도, 세계시민, 협력·헌신 등의 핵심역량 향상에 비교적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학기에는 ‘자기주도(평균 4.38) > 협력·헌신(평균 4.36) > 세계시민(평균 4.31) > 의사소통(평균 4.23)’의 순으로 핵심역량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학기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온라인 혼합 플랫폼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연정(2022: 216)에서도 제시되었던 결과로, 기본 목적과 성격이 다른 중국어회화 교과목에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의사소통역량의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학기과 2학기의 차이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교실 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수업과 비교하여 동료학생 혹은 교수자와의 소통이 감소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러닝 방식으로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의 축소하고 Zoom 실시간 그룹 활동 시간을 격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2학기에는 ‘의사소통(평균 4.52) > 협력·헌신(평균 4.51) > 자기주도(평균 4.45) > 세계시민(평균 4.43)’의 순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진행된 1학기과 비교하여 의사소통역량의 향상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원격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이명관, 2021:36-37), 동료학생들과의 소통 또한 비실시간 원격수업보다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기주도 역량의 평균이 1학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 혼합 운영이 자기주도역량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핵심역량 향상도를 학기별로 제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1학기의 문제해결역량 향상도(평균 3.97)를 제외하고 1학기과 2학기 모두 모든 핵심역량의 향상도가 4.00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핵심역량 향상도 또한 앞서 연구도구를 통해 측정된 향상도와 마찬가지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학습자가 자각하는 핵심역량 향상도

학기		의사 소통	자기 주도	협력 헌신	세계 시민	전문 지식	문제 해결	핵심역량 전반
1학기	평균	4.61	4.48	4.55	4.18	4.00	3.97	4.45
	N	33	33	33	33	33	33	33
	SD	0.609	0.755	0.666	0.769	0.829	0.984	0.711
2학기	평균	4.88	4.65	4.59	4.35	4.24	4.24	4.59
	N	17	17	17	17	17	17	17
	SD	0.332	0.606	0.618	0.702	0.752	0.903	0.507

그리고 학기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1학기의 평균이 4.45, 2학기의 평균 4.59로 2학기의 평균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 기반의 수업이 진행된 1학기과 비교하여 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2학기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에 대한 긍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의 혼합 운영이 외국어 능력 향상도에 긍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 핵심역량의 특징 및 과목별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기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1학기에는 ‘의사소통(평균 4.61) > 협력·헌신(평균 4.55) > 자기주도(평균 4.48) > 세계시민(평균 4.18) > 전문지식(평균 4.00) > 문제해결(평균 3.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2학기에는 ‘의사소통(평균 4.88) > 자기주도(평균 4.65) > 협력·헌신(평균 4.59) > 세계시민(평균 4.35) > 전문지식=문제해결(평균 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기과 2학기 모두 평균 및 순위 차이는 있지만 의사소통, 협력·헌신, 자기주도 등의 역량 향상에 대한 긍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학기에 측정한 자기주도 역량에서 연구도구를 활용한 향

상도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향상도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의 혼합 운영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IV. 결론

본고는 대학 온라인 중국어회화 교과목의 운영 사례를 핵심역량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 보았다. 교육안의 핵심역량적 요소를 고찰한 후 학습자의 핵심역량 향상도, 학습자 인식 등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우선 교육안 분석을 통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활동이 학습자의 핵심역량 향상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본 교육안이 의사소통, 자기주도, 협력·헌신, 세계시민 등의 핵심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였다. 즉 중국어교육에서 중국어능력 향상과 함께 핵심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각 대학의 핵심역량 체계 등에 차이가 있지만, 중국어 관련 교과목에 설정된 핵심역량 간에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많은 교수자들이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과목에서 핵심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역시 과연 중국어교육, 특히 온라인 중국어교육 과정을 통한 핵심역량 향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sup>9)</sup> 그런데 교수자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이기

9) 이는 그동안 정책연구를 통해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수자들이 역량의 개념이 생소하고, 또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아, 2022:32).

때문에 교사의 지식, 태도, 인지는 교육과정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정진, 2016:96). 교수자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교수 기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전문성과 역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인식이 먼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핵심역량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연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본 교육안이 주역량인 의사소통역량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021년 1학기에 해당 핵심역량의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실시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한 2학기에는 가장 높은 향상도를 나타냈다. 또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는 핵심역량 향상도에서 1학기과 2학기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보여, 본 교육안이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학생의 핵심역량 측정 결과를 감안할 때 매우 희망적인 결과이다. 지난 2016년에서 2018년에 측정된 핵심역량별 K-CESA 점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의 점수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경중·강마리아, 2021:244).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교육안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향후 관련 교육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또한 핵심역량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서로 상이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된 1학기과 2학기의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시간-비실시간 플랫폼 기반의 교육안 운영에서는 자기주도역량의 향상도가 가장 높고 의사소통역량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시간 플랫폼 운영에서는 의사소통역량 향상도가 가장 높고 자기주도역량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유연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일반적인 중국어회화 교과목을 통한 핵심역량 향상이 가능한지를 중점으로 고찰한 연구로 핵심역량 향상을 목표로 교육안을 설계 및 운영한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교육안의 어떤 활동이 목표 핵심역량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핵심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 중국어 교육안을 설계하고 운영한 후, 그 효과 및 영향 요소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어회화 교과목의 각 단계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본 연구가 향후 역량 중심의 중국어교육안 개발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정진, <전환적 관점에서 살펴본 역량 중심 초등 영어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2016.
- 고진영·정기수,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H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11(2), 2017.
- 곽은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 고찰>, 《교육연구논총》 40(2), 2019.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 김연희·정재삼·이종경·이유진,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2(4), 2010.
- 김유경·이지은, <협업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비교과 학습공동체 지원체제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7(3), 2021.
- 김중윤·이미경·최인선·배화순·유금복·박일수, 《OECD Education 2030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우리나라 교사의 역량 개발 방향 탐색: 학생

- 주도성 및 협력적 주도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1-5, 2021.
- 김지원,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혜경, 〈핵심역량 수행활동 기반 교양영어 수업의 효과성 연구〉, 《문화와융합》 43(9), 2021.
-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 길잡이》,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박경중·강마리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역량》, 서울: 동문사, 2021.
- 박성미,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 분석〉, 《직업교육연구》 30(3), 2011.
- 박소영·김혜숙·남창우·윤지훈·이동엽,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연구보고 CRT 2013-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박일수, 〈Jigsaw 협동학습이 예비교사의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2019.
- 백승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4(3), 2020.
- 신혜중, 〈대학생의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연구 -A지역의 S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2019.
- 양채원·문지영,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연구동향 분석〉, 《핵심역량교육연구》 7(1), 2022.
- 위수광, 〈핵심역량 기반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모형 개발〉, 《중국어언어연구》 90, 2020a.
- 위수광, 〈중국어 전공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고찰 -대학별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 연구》 32, 2020b.
- 이명관,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역량강화중심 대학영어 교수-학습 모형 개발〉, 《문화기술의 융합》 7(4), 2021.

- 이민경·김재춘·이수경·구본석·조규락·지현배·정주영·서지영·홍은영·하명정 등 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21.
- 이석재·장유경·이헌남·박광엽,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이영아,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쟁점 및 과제>, 《현대영어교육》 23(1), 2022.
- 이현정, <협력학습에서 교수자의 개입과 평가 방식이 대학생들의 협업역량과 자기관리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2020.
- 임연정,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교양중국어 교육이 핵심역량 향상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문학논집》 133, 2022.
- 조보경·전영주,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탐색>, 《영어영문학연구》 64(1), 202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도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홍원표·이근호·이은영,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연구 :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Bernie Trilling, Charles Fadel.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서울: 학지사, 2009.
-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June 15, 2010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 2005.
- OECD. Future of Educationg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Student Agency for 2030, 2019.
- Schoon, I. Conceptualising Learner Agency: A Socio-Ecological

Developmental Approach, published by the Centre for Learning and Life Chances in Knowledge Economies and Societies at [www.llakes.ac.uk](http://www.llakes.ac.uk), 201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uture direction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actual case of Chinese conversation course operation.

Owing to the technical innovation together with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mankind has entered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to each other. On top of lots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talent required for society, the improvement of learners' core competencies was rising as the most important goal, instead of effective teaching of knowledge & information, which was the center of the existing college education. In other words, it is time to change the existing system and methods of education or training.

Therefore, this study approached and analyzed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the College online Chinese conversation subject from a core competencies perspective.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core competencies elements of the education plan, the learner's core competencies improvement and learner perception were analyzed together. Also, a survey targeting the students verified that the lesson design of this course had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ies such as communication, self-directedness, global citizen, and cooperation/devotion

of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the foundation for presenting the new direction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4차 산업혁명(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온라인 수업(Online Classes),  
대학 중국어회화(College Chinese Conversation),  
수업설계(Lesson Design), 설문조사 분석(Survey Analysis)